

구강보건 증진 공공·민간 역할 재조명

치협 주최 첫 민·관 합동 정책 포럼...치과계 관계자 200여명 참석

치협 등 치과계 유관 단체들과 시민단체, 복지부 구강정책과 등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 및 민간 구강의료 혁신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정책토론회가 치과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열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된 기초발표에서 '공공의료와 구강보건 사업'을 주제로 첫 번째 기초발표에 나선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치과 의사 인력수와 치과급여비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보건의료에서 치과부분은 평균 4% 이상을 차지함에도 이러한 비중과는 무관하게 공공의료 확충 5개년 중합대책에는 구강보건사업비가 단 1% 미만으로 책정돼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홀대의 근본 원인이 공공부문의 구강보건사업개발에 치과계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에 있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취약계층 및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구강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치아홈메우기 사업, 무료노인 의치사업 등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구강정책 개발 방향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이 같은 제안의 일환으로 ▲초·중학생, 노인, 장애인 등 3대 취약계층들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역학자료 데이터 베이스 및 감시체계의 구축 ▲현행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확대한 구강보건센터 설립 ▲구강보건의료인력 개발 및 재교육 시행 ▲보험수가 개선 등을 통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선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는 '구강보건 의료인력 개발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의 경우 양성 인력이 공급과잉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저조해 일선에선 구인난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유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박사는 또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관리는 활동자 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력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자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양성기관 증설 및 입학정원 증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강보건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강동완 조선치대 학장은 "고령화 및 무병장수 시대를 앞두고 치아의 보존, 재생, 이식 및 임플란트 의료기술 등은 국가적 차원의 블루오션 산업으로 육성 될 수 있다"며 "치과영역을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 측면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학장은 또 "현재 중국 및 동남아 등의 낙후된 치과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BT, IT, NT를 활용하는 치과의료 및 산업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자산이다"며 "치과 산업의 육성과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수구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정인 구강정책과 과장과 김진범 부산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송은주 치위협 부회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철신 건치 정책국장, 안재모 치재협 국제이사, 김지환 치기협 교육이사, 이근유 보건치위생사회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지정토론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의·치의학교육발전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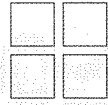
치의 3인 위원 선임

교육부가 의·치의학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의·치과대학과 비전환 의·치과대학간의 의견을 수렴, 조정해 8월말까지 의·치의학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치과계에서는 박상진 치대학장협의회회장, 정필훈 서울치대 학장, 박영철 연세치대 학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장엔 이성낙 가천의과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박상진 치대학장협의회회장은 "위원회 구성은 치의학계 교수 3명,

의학계 교수 10명, 언론계 2인, 교육부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상건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4+4로 운영되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기본으로 해 학부(2년)+대학원(4년) 제도를 도입할 지 여부와 도입 시 각 전문대학원이 선발할 수 있는 비율, 군 복무나 수련기간 단축 방안, 기초의과학 전공 박사과정생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검찰·시민단체 무면허 의료단속 '삼각공조'

10월까지 단속반 가동 대대적 특별점검 / 치협 "숨방망이 처벌 가장 큰 문제"

서울지방검찰청과 치협을 비롯한 보건 의료 및 시민단체들이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반을 운영,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서울지검을 비롯한 각 단체들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해 의약품 제조, 판매가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국민건강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 발본색원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단속은 무면허 의료업자 단속은 물론 부정, 불량식품 유통, 건강식품 등의 과장 허위 광고, 불법 농수산물 판매 및 제조, 불량의료용구 제조 유통 등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어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동 단속반에는 치협 법제팀을 비롯한 각 보건 의료단체와 서울시 복지건강국, 식약청 식품 감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YMCA, 식생활 안전시민운동본부 등이 참가하며, 각 기관별 정보 교류와 경찰 지원 요청 등 단속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포함 의료 면허증 대여, 의료기관 개설, 의약품 판매에 적발되면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번 국민 식품보건사법 특별 단속 관련 주요 의료단체들에게 업무 사항 및 단속 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높은 의견을 교환코자 7월 14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치협 법제위원회는 불법 치과 의료행위 적발 애로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향을 적극 개진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 불법의료행위의 경우 적발이 어렵고, 불법 시술 장비를 발견한 경우라도 시술 장면을 목격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지 않는 맹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칭 돌팔이를 단순 민생 사범으로 분류, 처벌이 경미한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절 방안으로 "불법 기공소 및 치과 재료상도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기기 유통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과 돌팔이의 경우는 사회 질서 확립 및 국민구강 건강보호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불소화 국제학술대회 지원

치정회 실무위원회... 9월 규약개정 확정

한국치정회(회장 신영순)는 7월 11일 치협 회관에서 실무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9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수도물불소농도조정사업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치정회는 이날 회의에서 김광수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부터 건시연의 활동상황 등을 들은 뒤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로부터 국제학술대회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치협을 통해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건시연은 수도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교육자료 배포, 수불 홍보 소식지 제작 배포, 인터넷을 통한 교육홍보와 자료 유포, 수불사업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수도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다.

치정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흥예표 부회장, 이수인 감사가 참석

한 가운데 치정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뒤,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치정회는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장, 서울지부 구회장, 치과대학장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치정회는 치협 임원을 맡아 사퇴한 김명수·김성욱 부회장 후임에 서울지부 강남구 이채동 원장과 장석순 전 대전지부 회장을 선출했으며, 오는 10월 22일과 23일 제주도에서 정기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치정회 규약개정을 적극 검토해 오고 있는 치정회는 오는 9월 실무위원회에서 규약을 검토해 결정한 후 오는 10월 정기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